

전주시 초등학교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

김영임

전주비전대학 치위생과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Jeonju

Young-Im Kim

Dept. of Dental Hygiene, Vision University of Jeonju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ress the necessity of the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70 students who were in their fourth,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s in the city of Jeonju that were equipped with school dental clinics. A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ir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Results : As for oral health knowledge, 47.5% that was the largest group had an excellent knowledge of oral health. In regard to preference for the content of oral health educati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d the most preference for toothbrushing education, and there was a definite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ncern for oral health and actual oral health care, since those who were more interested in oral health took better care of their oral health.

Conclusions :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satisfactory, and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quality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are required to encourage their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knowledge

색인 :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동, 초등학교

1. 서론

학교구강보건은 학교교육의 일부로서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유지 증진하고 학생들의 구강건강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일생 동안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속적 노력과 정이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구강보건은 전체 구강보

건 분야 중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된 바 있다¹⁾.

사람의 생애주기 중 초등학교 학령기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시기이면서 신체적으로는 완만한 성장과 발달을 하는 시기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각하고 건강행위를 스스로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우며 행동하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 초등학생의 건강습관은 성

인기까지 일생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시기는 건강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교육을 통해 건강행위를 증진시키는 것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²⁾. 이러한 대국민적 건강 향상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예방중심 건강관리영역에 구강보건목표를 설정하고 있다³⁾. 우리나라의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아동 우식경험영구치치수가 2.20개⁴⁾로 2000년 3.30개⁵⁾, 2003년 3.25개⁶⁾에 비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OECD 국가들 대부분이 1.20~2.30개⁶⁾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중대 구강병 중 치아우식증은 자연 치유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며, 혼합치열기 영구치 우식은 성인이 된 후 영구적 치아 손실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시기에 구강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여 평생 동안 스스로 구강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기존연구로는 김과 김⁷⁾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건강에 구강건강 증진행위의 실천도가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장과 송⁸⁾은 조사대상자들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으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은 크게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 등⁹⁾은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이 구강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전¹⁰⁾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치태가 무엇이고, 어떻게 치태가 치아우식증을 유발시키는지, 나아가서 학생 개개인의 구강 내에 형성된 치태부위를 직접 보여주고, 치태를 제거해야 하는 목적을 정확히 인지시켜 잇솔질 효율을 높이는 데 체계적인 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초등학교 시기는 왕성한 성장발육과 함께 빈번한 간식섭취 후 구강관리의 부족으로 치아우식증과 치은염이 발생되기 시작하므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행동을 변화시켜서 일생 동안 스스로가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능력을 배양시켜주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¹⁰⁾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은 학교구강보건사업 더 나아가 대국민적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주시지역에 구강보건실이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을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사업평가 및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학교구강보건교육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구강보건 지식 및 행동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개인의 구강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전라북도 전주시지역에 구강보건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7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동의를 받은 후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개별자기기입 방식으로 작성한 후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회수하였다. 이들 중 응답한 설문지는 총 570명으로 응답률 81.4%를 분석대상으로 이용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장과 송⁸⁾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세부 문항은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보건지식관련 16문항, 구강보건행동관련 11문항, 일반적인 특성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동의 신뢰도는 각 문항이 동일한 차원의 문제를 측정할 것인가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Cronbach's α 의 신뢰도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신뢰도는 구강보건지식 0.626, 구강보건행동 0.657이었다.

구강보건지식의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자는 1점, 오답자는 0점으로 부여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지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강보건행동을 측정한 11개의 설문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 3개의 요인을 우식성 식품 선호도, 구강관리 실천도, 구강건강 관심도라고 명명하였다. 각 요

인들에 대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우식성 식품 선호도가 0.526, 구강관리 실천도가 0.757, 구강건강 관심도는 0.646이었다.

연구결과의 기술 통계학적 요약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Chi-square, T-test,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강보건지식 수준과 구강보건행동의 하위영역인 우식성식품 선호도, 구강관리 실천도, 구강건강 관심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유의성 검정에 이용한 유의수준은 0.05이었다.

3. 연구성적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570명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298명(52.3%), 여학생이 272명(47.7%)으로 남학생이 약간 많았고, 학년별로는 4학년 154명(27.0%), 5학년 244명(42.8%), 6학년 172명(30.2%)으

로 나타났다.

3.2.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

3.2.1. 구강보건지식 및 지식수준

학생의 구강보건지식의 정답분포를 보면 각 문항에 관한 오답자에 비해 정답자의 수가 많았다. '잇솔질을 할 때 혀도 닦는다'의 정답자가 97.9%로 가장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으며, '어린이의 충치는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의 정답자가 9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아를 뿌리째 빠졌을 때는 빠진 치아를 갖고 치과에 간다'의 오답자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 정답수가 0~5개, 6~10개, 11~16개인 수준에 따라 각각 '상, 중, 하'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상' 47.5%, '중' 46.8%, '하' 5.7% 순으로 '상' 그룹이 가장 많았다.

3.2.2.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은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가 '상' 159명

표 1.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

구 분	정답자	오답자
1. 정기적인 구강검진은 6개월에 1번이다.	360(63.2)	210(36.8)
2. 치아를 뿌리째 빠졌을 때는 빠진 치아를 갖고 치과에 간다.	342(60.0)	228(40.0)
3. 엄지손가락을 빠는 행위는 치아나 턱의 모양을 바르지 않게 한다.	460(80.7)	110(19.3)
4. 아주 어릴 때 유치가 먼저 나고 나중에 영구치가 생긴다.	468(82.1)	102(17.9)
5. 잇솔은 머리가 중간 크기이고 손잡이가 곧은 것이 좋다.	406(71.2)	164(28.8)
6. 잇솔질을 할 때 혀도 닦는다.	558(97.9)	12(2.1)
7. 이닦을 때에는 회전법으로 닦는 것이 좋다.	518(90.9)	52(9.1)
8. 1회 잇솔질 시간은 3분 정도가 적당하다.	538(94.4)	32(5.6)
9. 잇솔질은 식사 직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466(81.8)	104(18.2)
10.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잇솔질이다.	508(89.1)	62(10.9)
11. 충치는 세균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음식물과는 상관이 없다.	468(82.1)	102(17.9)
12. 과일, 우유, 채소 등은 치아를 청결히 하는 음식이다.	430(75.4)	140(24.6)
13. 초콜렛, 과자, 사탕 등은 충치를 잘 발생시키는 음식이다.	506(88.8)	64(11.2)
14. 불소는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	502(88.1)	68(11.9)
15. 충치는 이를 잘 닦지 않아서 생긴다.	474(83.2)	96(16.8)
16. 어린이의 충치는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546(95.8)	24(4.2)

(53.4%), ‘중’ 135명(45.3%), ‘하’ 4명(1.3%)이었으며, 여자는 ‘상’ 151명(55.5%), ‘중’ 119명(43.8%), ‘하’ 2명(0.7%)으로 남학생, 여학생 모두 ‘상’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년별로 살펴보면 4학년은 ‘상’ 100명(64.9%), ‘중’ 54명(35.1%)이었으며, 5학년은 ‘상’ 124명(50.8%), ‘중’ 115명(47.1%), ‘하’ 5명(2.1%)이었고, 6학년은 ‘상’ 86명(50.0%), ‘중’ 85명(49.4%), ‘하’ 1명(0.6%)으로 4·5·6학년 모두 ‘상’ 그룹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3.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동

3.3.1.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

성별 및 학년별, 구강보건지식 수준에 따른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를 살펴보면, 하루 잇솔질 횟수가 성별로는 남학생은 ‘하루에 2번’ 112명(37.6%)이, 여학생은 ‘하루에 3번’ 124명(45.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6$). 학년별로는 4

학년은 ‘하루에 3번’ 74명(48.1%), 5학년은 ‘하루에 2번’ 108명(44.3%), 6학년은 ‘하루에 3번’ 72명(4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4$). 구강보건지식 수준에 따라서는 ‘상, 중, 하’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3.3.2. 성별과 학년별, 구강보건지식 수준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성별과 학년별, 구강보건지식 수준에 따른 구강보건행동은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라 우식성 식품 선호도($p=0.009$)와, 구강관리 실천도($p=0.005$), 구강건강 관심도($p=0.026$)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구강관리 실천도에서 남학생 3.55와 여학생 3.65로 가장 높았다.

학년별에 따라서도 우식성 식품 선호도($p=0.000$)와, 구강관리 실천도($p=0.021$), 구강건강 관심도($p=0.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역시 구강

표 2.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

구 분		상	중	하	전 체
성별	남	159(53.4)	135(45.3)	4(1.3)	298(52.3)
	여	151(55.5)	119(43.8)	2(0.7)	272(47.7)
	p값	p=0.706			
학년별	4학년	100(64.9)	54(35.1)	0(0.0)	154(27.0)
	5학년	124(50.8)	115(47.1)	5(2.1)	244(42.8)
	6학년	86(50.0)	85(49.4)	1(0.6)	172(30.2)
	p값	p=0.011			

표 3.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

항목	구 분	성별		학년별			구강보건지식 수준		
		남	여	4학년	5학년	6학년	상	중	하
하루 잇솔질 횟수	하루 1번	28(9.4)	8(2.9)	6(3.9)	20(8.2)	10(5.8)	15(4.8)	21(8.3)	0(0.0)
	하루 2번	112(37.6)	102(37.5)	50(32.4)	108(44.3)	56(32.5)	119(38.4)	94(37.0)	1(16.7)
	하루 3번	110(36.9)	124(45.6)	74(48.1)	88(36.1)	72(41.9)	129(41.6)	101(39.8)	4(66.6)
	하루 4번 이상	48(16.1)	38(14.0)	24(15.6)	28(11.4)	34(19.8)	47(15.2)	38(14.9)	1(16.7)
p값		p=0.006		p=0.014			p=0.562		

관리 실천도에서 4학년 3.78, 5학년 3.51, 6학년 3.56으로 가장 높았다.

구강보건지식 수준에 따라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 구강관리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 그룹에서 구강관리 실천도(3.94)와 구강건강 관심도(3.0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4. 초등학생의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 및 치과위생사 필요유무와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

3.4.1. 구강보건교육 사전경험 여부 및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위생사 필요유무

성별과 학년별, 구강보건지식 수준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사전경험 여부 및 치과위생사 필요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초등학생의 구강보건교육 사전경험 여부는 ‘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65.6%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구강보

건실에 치과위생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74.7%로 높게 나타났다<표 5>.

3.4.2. 가장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교육을 다시 받는다면 가장 선호하는 교육내용으로는 ‘잇솔질 교습’이 가장 높은 선택률인 88.2%를 나타냈으며, ‘충치예방법’, ‘불소사용법 및 수불사업에 대한 교육’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표 6>.

3.5. 구강보건지식 수준과 구강보건행동 하위 영역과의 상관관계

구강보건지식 수준과 구강보건행동의 하위영역인 우식성식품 선호도, 구강건강 관심도, 구강관리 실천도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다.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관심도가 높아지는 정의 관계였으나 ($r=0.085$), 우식성 식품 선호도에 대한 구강건강 관심도와 구강관리 실천도는 부의 관계였다($r=-0.219$,

표 4. 성별과 학년별, 구강보건지식 수준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구 분		구강보건행동					
		우식성 식품 선호도	p값	구강관리 실천도	p값	구강건강 관심도	p값
성별	남	2.82±0.821	0.009	3.55±0.765	0.005	2.83±0.877	0.026
	여	2.66±0.686		3.65±0.656		2.80±0.778	
학년별	4학년	2.53±0.716 ^a	0.000	3.78±0.734 ^b	0.021	2.97±0.902 ^b	0.001
	5학년	2.72±0.781 ^b		3.51±0.727 ^a		2.78±0.812 ^a	
	6학년	2.95±0.728 ^b		3.56±0.656 ^a		2.73±0.774 ^a	
구강보건지식 수준	상	2.42±0.801	0.220	3.94±0.821 ^a	0.049	3.06±1.255	0.244
	중	2.79±0.811		3.55±0.716 ^a		2.72±0.861	
	하	2.70±0.763		3.62±0.713 ^a		2.89±0.790	

^{a, b} Duncan의 사후검정에 의한 군 분류변수

표 5. 구강보건교육 사전경험 여부 및 치과위생사 필요유무

항 목	구 분	전 체
구강보건교육 사전경험	경험	374(65.6)
	비경험	196(34.4)
치과위생사 필요유무	필요하다	426(74.7)
	필요하지 않다	144(25.3)

표 6. 가장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

항 목	선택률(%)
잇솔질 교습	88.2
충치예방법	75.3
불소사용법 및 수불사업에 대한 교육	60.5
치아의 구조 및 역할	44.9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법	20.9
흡연	17.2
식이조절	15.6
구강외상응급처치 및 예방법	12.9
기타	3.8

* 선택률은 각 항목당 백분율(일인당 세 가지 선택).

표 7. 구강보건지식 수준과 구강보건행동의 상관관계

	구강보건지식 수준	우식성 식품 선호도	구강건강 관심도	구강관리 실천도
구강보건지식 수준	1			
우식성 식품 선호도	-0.042	1		
구강건강 관심도	0.085*	-0.219**	1	
구강관리 실천도	0.032	-0.161**	0.363**	1

* $p < 0.05$, ** $p < 0.01$

$r = -0.161$). 또한, 구강건강 관심도가 높을수록 구강관리 실천도도 높게 나타나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r = 0.363$).

4. 총괄 및 고안

초등학교 시기는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고 당분의 섭취가 많아 치아우식증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구강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일평생 구강건강의 기초가 되는 시기이므로 초등학교생들에게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습관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⁷⁾.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사업은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⁰⁾. 학생구강관리의 목적은 올바른 생활습관형성과 구강건강증진행위 능력을 길러주어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김 등³⁾은 초등학교 학령기에 구강보건교육을 통

하여 올바른 지식, 태도, 행동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은 학생의 구강건강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초등학교 4·5·6학년 57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생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을 조사 분석하여 구강보건 지식이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토하였다.

초등학교생의 구강보건지식의 정답분포는 정답자가 오답자에 비해 그 수가 많았으며, 지식수준은 16개의 문항을 0~5개, 6~10개, 11~16개인 수준에 따라 각각 '상', '중', '하'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상' 47.5%, '중' 46.8%, '하' 5.7% 순으로 '상' 그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김 등¹¹⁾과, 이¹²⁾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가 많아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간주된다. 앞으로도 초등학교에 지속

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구강보건지식과 올바른 행동이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초등학교의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구강보건교육 지식수준을 더욱 높여 정확한 이해와 구강건강증진행위 능력을 길러주어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초등학교의 구강보건행동과 관련하여 성별 및 학년별, 구강보건지식 수준에 따른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를 살펴보면, 하루 잇솔질 횟수가 성별로는 남학생은 ‘하루에 2번’ 37.6%, 여학생은 ‘하루에 3번’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4학년은 ‘하루에 3번’ 48.1%, 5학년은 ‘하루에 2번’ 44.3%, 6학년은 ‘하루에 3번’ 41.9%로 가장 많이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김등¹³⁾의 연구에서 1일 잇솔질 횟수가 2회인 경우 남학생 50.9%, 여학생 49.5%로 나타났으며, 최¹⁴⁾의 연구와 Rajab 등¹⁵⁾의 연구에서는 하루에 2번이 가장 많은 것으로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¹⁶⁾의 연구에서 잇솔질 횟수가 많을수록 발치수가 감소한다고 하여 잇솔질이 구강질환예방에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매 식사 후 잇솔질을 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김과 성¹⁷⁾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잇솔질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성별, 학년별에 따라 구강보건행동의 하위영역인 우식성 식품 선호도와, 구강관리 실천도, 구강건강 관심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구강관리 실천도에서 가장 높았다. 구강보건지식 수준에 따라 구강관리 실천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 그룹에서 구강관리 실천도와 구강건강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행동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구강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구강보건실에 치과위생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74.7%로 이¹²⁾의 60.3%보다도 높게 나타났는데, 학교구강보건실에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 효과적으

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구강보건사업이 실시되어 운영되지만, 선진국형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호주, 영국, 스위스, 스웨덴 등지의 유럽과 오세아니아주 국가와 같이 각 학교마다 학교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시 단위 학생 수 400명 이상, 구·군 단위는 200명 이상이 되었을 때 보건소에서 구강보건 인력이 출장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¹⁸⁾. 그러므로 학교구강보건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건실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강보건 전문가인 치과위생사를 학교에 배치하여 학교계속구강건강 증진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구강보건교육을 다시 받는다면 가장 선호하는 교육내용으로는 ‘잇솔질 교습’이 가장 높은 선택률인 88.2%를 나타냈으며, ‘충치예방법’, ‘불소사용법 및 수불사업에 대한 교육’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이처럼 구강보건교육시 구강병 예방 및 구강관리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언제든지 학생들의 필요 시에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구강보건지식 수준과 구강보건행동의 하위영역인 우식성 식품 선호도, 구강건강 관심도, 구강관리 실천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관심도가 높아지는 정의 관계였으며, 구강건강 관심도가 높을수록 구강관리 실천도도 높게 나타나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에 초등학교생들에게 올바른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 일평생의 구강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내실 있는 초등학교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학교구강보건실을 조성한 후 치과위생사를 학교구강보건실에 상주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구강보건교육은 물론 예방처치를 실시하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주기적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활성화시키고 상주 치과위생사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 및 예방처치 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나,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의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유무에 따라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태도 및 행동, 치아우식증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교의 구강보건증진도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을 조사하여 초등학교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선정한 전라북도 전주지역에 거주하고 학교구강보건실이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3개교의 4·5·6학년 570명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보건지식은 성별에 따라 남학생, 여학생 모두 '상', 그룹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4·5·6학년별에 따라서는 모두 '상' 그룹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 성별과 학년별에 따라 구강보건행동으로서 우식성 식품 선호도와, 구강관리 실천도, 구강건강 관심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구강관리 실천도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3. 초등학교의 구강보건교육 중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교육내용으로 잇솔질 교습을 가장 선호하였다.
4. 구강보건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관심도가 높아지는 정의 관계였으나($r=0.085$), 우식성 식품 선호도에 대한 구강건강 관심도와 구강관리 실천도는 부의 관계였다($r=-0.219$, $r=-0.161$). 또한, 구강건강 관심도가 높을수록 구강관리 실천도가 높게 나타나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r=0.363$).

이상의 연구를 볼 때 조사대상자들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은 양호한 상태였으나 초등학교의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위한 구강보건교육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강승훈, 김명섭, 이선미 외 3인. 학교구강보건실 계속 구강건강 관리사업 효과 평가.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6;30(3):231-242.
2. 김성희.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행위 예측모형 [박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3.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외 4인. 공중구강보건학. 4차 개정판. 서울: 고문사; 2008:259-315.
4. 백대일.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2008. 서울: 구강보건사업지원단; 2009.
5. 정석순, 이흥수. 대전시 일부 학부형의 학교구강검진에 대한 인식실태.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6;30(2):117-129.
6. 마재경, 김무영, 최재홍, 김동기, 오정숙.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구강건강 증진사례 분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5;29(1):77-86.
7. 김수경, 김윤신. 초등학교의 구강건강증진행위와 구강건강상태의 관련성. 치위생과학회지 2007;7(4):271-274.
8. 장분자, 송경희. 초등학교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6;6(3):201-206.
9. 김숙진, 안숙희, 김영혜, 정은순. 부산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과 구강건강상태간의 관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4;21(1):69-84.
10. 전현자. 구강보건교육에 의한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보건 지식도와 위생관리능력의 변화 [석사학위논문]. 대구: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98.
11. 김정술, 최성숙, 이정화, 장분자. 초등학교 저학년의 구강보건지식과 어머니들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위생과학회지 2005;11(1):91-101.
12. 이해경. 초등학교들의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주: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2007.
13. 김수경, 임순환, 원영순. 초등학교의 구강증상 경험 및 구강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9;9(4):381-385.

14. 최규범. 부모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이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부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15. Rajab LD, Petersen PE, Bakaeen G, Hamdan MA. Oral health behavior of schoolchildren and parents in Jordan. *Int J Paediatr Dent* 2002;12(3):168-176.
16. 김연화. 울산지역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지식과 행태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9; 9(1):17-23.
17. 김동기, 성진효. 잇솔질교습횟수에 따른 구강미생물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3;17(1):147-161.
18. 서은주.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광주: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4.